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순천 해룡산단에 들어선다

355억원 들여 2007년 7월 준공

순천에도 포스코 관련 업체가 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인 순천 해룡임대산단에 들어선다.

그동안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마그네슘 판재공장 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에 맞서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펴 왔다. 순천시는 80억원 상당에 이르는 산단 부지 무상 제공, 연구원 상주 아파트 제공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매출액 470억원이 예상되는 마그네슘 강판 공장은 2만평 부지에 355억원을 들여 8월 초 착공, 2007년 7월 준공 예정이며 13일 전남도청에서 포스코와 전남도, 순천시가 함께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다음달 투자협약식을 갖는다.

포스코는 공장 준공과 함께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등의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마그네슘 판재를 본격 생산하게 되며 이들 부품 시장은 현재 연 1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시와 도는 이번 판재 사업 유치로 전략산업인 신소재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산·학·연이 집적된 마그네슘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는 한편 마그네슘 판재와 연관되는 합금, 판재가공, 표면처리, 리싸이클링 등 연관 업체를 2010년까지 최소 30개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30년 낡은 법' 섬여행 막는다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여객선 올 스톱

여수지역 상반기 섬여행객 40% 줄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섬 여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현실과 맞지않은 운항 관련법으로 인한 잦은 여객선 결항을 들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여수지역 해운사·섬 주민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 섬여행객은 지난해보다 40%가량이 줄어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섬여행이 침체된 데는 여객선의 잦은 결항이 큰 원인이다. 현행법상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풍랑주의보만 발령돼도 발이 묶인다. 30여년전 철선이 운항될 때의 낡은 법에 의해 태풍의 이동속도보다 빠르고 최악의 경우에도 선체가 가라앉지 않는 자기부상능력의 최첨단 여객선에도 운항 정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옛날의 철선은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7시간이나 걸렸죠. 하지만 요즘 거문도를 운항하는 초쾌속선은 태풍하고 동시에 출발해도 여객선의 속도가 2배나 빠르므로 안전상의 문제는 없어요"

여객선을 운전한 지 15년이나 됐다는 가고오고호의 최병선(47) 선장은 여수~거문도 항로의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는 주체가 여수기상대가 아닌 제주기상대라 외해의 기상 상황을 내해에 적용하는 비현실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여수~거문도를 오가는 초쾌속선의 결항률은 연평균 20%에 달한다. 그것도 겨울이면 결항률은 더욱 높아져 섬여행길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산~일본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 가고오고호와 비슷한 규모의 여객선임에도 일본의 항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똑같은 주의보가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강성훈기자 kangsw@

자랑스런 포도(捕盜)왕

순천署, 박상록경장 시상

순천경찰서(서장 박현호)는 최근 민생침해사범 검거실적이 우수한 강력범죄 수사 2팀 박상록 경장을 '포도(捕盜)왕'으로 선정, 시상〈사진〉했다.

이번 포도왕에 선정된 박 경장은 강·절도범 등 검거실적이 우수하고, 특히 200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절도범을 검거하는등 민생침해사범 검거에 앞장서 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지역 단신/

섬진강 인근 주민 13% 간디스토마

섬진강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중 1~2명꼴로 간디스토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섬진강 인근 진월면 주민 941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 질병관리본부에 충란 검사를 의뢰한 결과 13.5%인 127명이 간디스토마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2년 전 실시한 기생충감염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간디스토마 감염률(9.17%)보다는 높은 수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섬진강에서 잡은 민물어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조리과정에서 충이 다른 음식물로 옮겨가면서 감염률이 타지역보다 높은 편"이라며 "디스토마 퇴치를 위해 약물 치료와 위생교육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	332-5544
광양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1004	담양	383-8111
녹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함평	324-8111	고창	564-1919
				순창	653-6155